



2025 Vol. 3

Veterinary Medicine Magazine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소식지



지역과 한국을 대표하는 수의과대학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BNU, CVM
수의과대학 소식지 Vol.3

Contents

01. 인사말

학장님 인사말	04
동문 회장님 인사말	05

02. 수의과대학 소식

교수	07
신임교수소개	10
정년퇴임교수	11
교수소식	12
교육/학사	15
봉사, 대외협력	31
기관 소식	35

03. 학생회

04. 동문회

05. 발전기금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 유 일 정

실무와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수의사 양성 세계로 나아가는 전북대 수의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은 1951년 설립된 이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한 결과, 세계적인 대학 평가기관인 QS사의 평가에서 세계 100대 수의과대학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문 수의과대학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수의사 국가시험에서는 전원 100% 합격이라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우수한 교육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양질의 수의학교육을 바탕으로 2023년 12월 국내 수의학 교육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 수의학교육 인증 준비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국내 수의과대학 중 최초로 예과 1, 본과 5년의 교과과정 개편을 추진하여 2025년 신입생부터 새롭게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더욱 전문적인 수의학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갖춘 수의사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대학 내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동물의료센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동물질병센터, 실험동물센터, 생체안전성 연구소, 동물 장기이식연구소를 포함하여 최첨단 수의학 연구기관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50억 규모의 실험동물센터가 특성화캠퍼스 수의과대학 내에 12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어, 연구 환경은 더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의 중점연구소 사업, 글로벌30 사업 등 다양한 국가 연구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문적 성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및 임상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세계적인 수준의 수의과대학으로 도약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의과대학의 소식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소식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모교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수의대의 더 밝은 미래를 함께 그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문회
회장 조 정 곤

존경하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문 여러분,

만물이 무르익는 풍요의 계절, 가을의 정점에서 우리 모교가 찬란한 개교 7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세월 수의학 발전과 모교의 위상 제고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모교의 74년 역사는 그 자체로 자랑스러운 여정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품고 묵묵히 걸어온 동문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땀이 모여 오늘의 전북대 수의과대학을 빛내고 있습니다. 임상, 공직, 연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동문 여러분은 공중보건의 든든한 수호자이자 식품 안전의 버팀목이며, 생태계 보전의 선구자로서 우리 사회가 신뢰하는 전문가로 자리하였습니다. 인류, 동물, 환경의 조화로운 건강을 지켜나가는 '원 헬스(One Health)' 시대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모교는 백 년의 미래를 향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이 융합된 새로운 수의학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기반 정밀진단과 예방 시스템의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수공통전염병의 선제적 대응은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막중한 사명이자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동문회는 선후배 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튼튼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협력적 공동체의 중심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동문회가 더욱 활기차고 단단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문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따뜻한 참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가 모교의 번영과 후학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교와 동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염원하며, 동문 여러분과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수

JBNU, CVM



학장

유 일 정 교수
수의산과학 및 번식공학
TEL.(063)850-0948



교무 부학장

임 재 구 교수
수의전염병학
TEL.(063)850-0933



학생 부학장
수의예과장

박 병 용 교수
수의발생학
TEL.(063)850-0961



수의학과장
전북야생동물센터장

한 재 익 교수
야생동물질병학
TEL.(063)850-0965



동물의료센터장

신 기 욱 교수
수생생명의학
TEL.(063)850-0955



가금류질병방제
연구센터장

장 형 관 교수
조류질병학
TEL.(063)850-0945



동물질병진단센터장

조 호 성 교수
돼지질병학
TEL.(063)850-0960



실험동물센터장

김 상 진 교수
수의약리학
TEL.(063)850-0963



임 채 웅 교수
수의병리학
TEL.(063)270-3788



강 창 원 교수
수의생리학
TEL.(063)850-0937



김 남 수 교수
수의외과학
TEL.(063)850-0938



조 정 곤 교수
수의미생물학
TEL.(063)850-0939



이준화 교수
수의공중보건학
TEL.(063)850-0940



김인식 교수
수의해부학
TEL.(063)850-0941



강형섭 교수
수의약리학
TEL.(063)850-0942



어성국 교수
수의미생물학
TEL.(063)850-0943



최을수 교수
수의임상병리학
TEL.(063)850-0956



김원일 교수
수의면역학
TEL.(063)850-0958



박철 교수
수의내과학
TEL.(063)850-0962



설재원 교수
수의생화학
TEL.(063)850-0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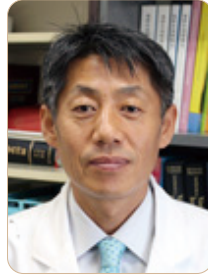
박상열 교수
수의생화학
TEL.(063)850-0966



안동춘 교수
수의해부학, 수의조직학
TEL.(063)850-0946



유명조 교수
수의기생충학
TEL.(063)850-0947



박진호 교수
수의내과학
TEL.(063)850-0949



허진 교수
수의공중보건학
TEL.(063)850-0959



태현진 교수
수의조직학
TEL.(063)850-0957



원가연 부교수
식품위생학
TEL.(063)850-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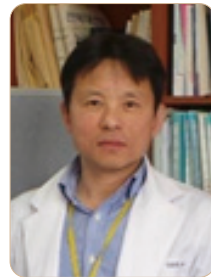
허수영 부교수
수의외과학
TEL.(063)850-0954



이기창 교수
수의영상의학
TEL.(063)850-0950



권중기 교수
실험동물학
TEL.(063)850-0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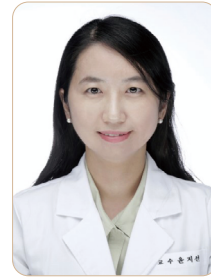
김종훈 교수
수의생리학
TEL.(063)850-0952



김범석 교수
수의병리학
TEL.(063)850-0953



윤학영 부교수
수의영상의학
TEL.(063)850-0936



윤지선 부교수
수의피부질병학
TEL.(063)850-0932



오상익 조교수
수의병리학
TEL.(063)850-0930



박준홍 조교수
수의생리학
TEL.(063)850-0929



문준호 조교수
수의산과학 및 생명공학
TEL.(063)850-0934

신임교수 소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생리학 박준홍 교수



25년 3월 1일부터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생리학
교수로 임용된 박 준 홍

학력

박사: 2004.03.02~2007.02.22
Konkuk University,
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석사: 2001.03.01~2003.08.30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학사: 1995.03.02~2000.02.25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산과학 문준호 교수



25년 9월 1일부터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산과학
교수로 임용된 문 준 호

학력

박사: 2012.03.01.~2015.02.26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석사: 2010.03.01.~2012.02.24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학사: 2001.03.01.~2010.02.26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정년퇴임교수

전북대 수의과대학 김진상 교수, 35년 학직생활 마무리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진상 교수가 오는 2025년 8월 31일부로 정년퇴직한다.

김 교수는 1990년 5월 1일 부임해 35년 넘게 수의독성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며 수많은 수의학 인재를 양성해왔다.

그동안 김 교수는 동물용의약품 및 환경독성 연구를 통해 국내 수의독성학 발전에 기여했으며, 학생들에게는 철저한 연구윤리와 학문적 열정을 강조해왔다.

전북대 수의과대학 관계자는 “김진상 교수는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는 학자이자 따뜻한 스승이었다”며 “그동안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교수소식

JBNU, CVM

김범석 교수,
대한수의학회 학술연구대상 수상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김범석 교수(생체안전성연구소 소장)가 최근 열린 대한수의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학술연구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난 10년간 수의학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이룬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김 교수는 지난 10년간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144편의 논문을 게재하며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생체안전성연구소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을 주관하여 2020년부터 6회에 걸쳐 학술대회 세션을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수의학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학회에서 김 교수는 특별 강연자로 나서, 전북대학교에서 지난 17년간 진행한 다양한 연구 주제인 'Chameleon's Dilemma: Adapting to Science Society's Expectations'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의 이번 수상은 수의학 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범석 수의과대학 교수,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 김범석 교수



전북대학교 김범석 수의과대학 교수(생체안전성연구소 소장)가 2024년 연말 업무추진 유공자 시상식에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월 3일 오전 10시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열렸다.

김범석 교수는 지난 8년 동안 야생동물 폐사체 병리 부검을 통한 질병 진단 및 시료 제공 연구사업에 매진하면서 인수공통감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관리 현안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교수는 "본 연구사업에 참여한 수의과대학의 병리 부검팀들과 전국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야생동물질병 모니터링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인수공통감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관리와 현안 대응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의대 조호성 교수, 국가바이오위원회 위원 위촉

▼ 조호성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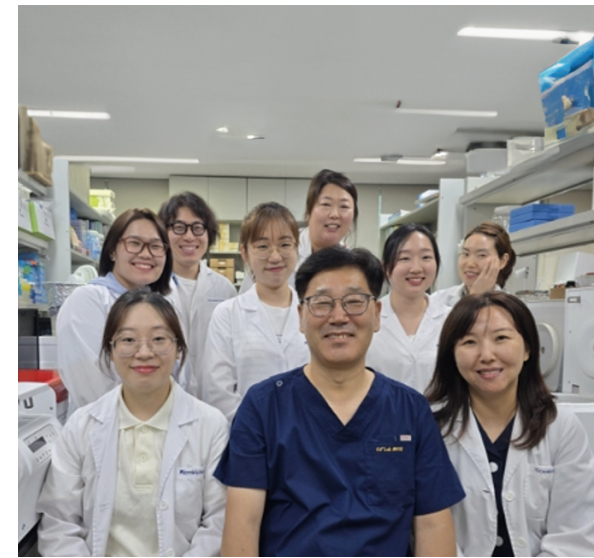
전북대학교 조호성 교수(수의대)가 국가바이오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고 31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12월 12일에 시작돼 2년이다. 지난 1월 23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범부처 최상위 위원회로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이론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와 4개 특별위원회를 두고, 이 가운데 디지털바이오특별위원회를 통해 바이오 헬스 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IT 융합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조호성 교수는 2010년부터 전북대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23년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생명의료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성국 교수팀, 난치성 천식 악화 과정 규명



전북대학교 어성국 교수(수의대 수의학과) 연구팀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악화되는 난치성 천식의 과정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해 세계적 학술지 『Allergy』(IF: 12.0)에 논문을 발표했다.

제1저자인 박성욱 박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천식 악화 메커니즘을 밝히고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천식은 호산구 침윤을 특징으로 하지만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바이러스 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따라 호중구가 과도하게 침윤되며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천식으로 진행된다.

어 교수팀은 바이러스 감염에 반응한 대식세포의 cAMP 보조 메신저(secondary messenger)가 천식 악화를 유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며, 폐 조직 내 간질성 대식세포(interstitial macrophage)의 인플라마솜 활성화에 의해 천식이 악화된다는 신호 체계를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샌디에이고 소재 캘리포니아대학교(UCSD) Eyal Raz 박사팀과의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바이러스성 감염이 천식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냄으로써 치료 기술 확보를 위한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어성국 교수는 "이번 연구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천식 악화의 기전을 밝힘으로써 향후 치료 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후속 연구를 통해 임상적 응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 지원사업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전북대 생체안전성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전북대 Zoonosis 핵심연구지원센터의 연구 인프라가 성과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어성국 교수,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표창 수상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어성국 교수가 '가축전염병 병원체 생물안전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북대학교를 대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2024년도 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기관 대상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생물안전 관리 수준이 우수한 기관과 그 공로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것이다.

표창 대상자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안전관리 및 수의학 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자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중 최근 1년 내 동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추천된다.

어성국 교수는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연구 환경의 생물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국내 수의과학 연구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전북대 수의과대학 한재익 교수,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 한재익 교수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공로 인정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한재익
교수가 야생동물 질병관리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재익 교수는 환경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을 우수하게 운영하며 국내 야생동물·
특수동물 분야 전문인력 배출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한 교수는 우리나라 야생동물 질병 조사체계
구축과 질병 발생 현황 조사사업에 참여하여, 국가
차원의 야생동물 질병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수의과대학 안동춘·윤학영 교수, 개교 78주년 '미래인재상' 수상

▼ 안동춘 교수



▼ 윤학영 교수



전북대학교 개교 78주년을 기념해 열린 '2025 미래
인재상' 포상에서 수의과대학 소속 교수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구 분야에서는 윤학영 교수가 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1,000천원을 받았으며, 수업 분야에서는 안동춘
교수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상금 2,000천원이
수여되었다.

'미래인재상'은 전북대학교가 매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연구, 수업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원 및
조교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수의과대학은 이번 수상을 통해 교육과 연구 양 측면에서
높은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학은 앞으로도 학문적
성과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의대 교수의 대학본부 활약상

▼ 이준화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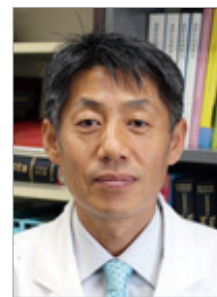


이준화 교수님은 전북대학교에서
연구부총장으로 재임하며,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 인프라 확충,
산학협력 증진, 국제 공동연구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가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지속적인 연구 성과 창출과 함께 후학
양성에도 힘쓰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학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 박진호 교수



박진호 교수님은 전북대학교
발전지원부총장으로서, 대학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학 발전 기금 유치, 대외 협력
확대, 동문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며, 대학의 비전
실현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 박병용 교수



박병용 교수님은 전북대학교에서
입학부처장으로 재임하며, 대학의
입학 정책을 총괄하고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힘써주십니다.

또한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우수한 신입생 유치를 위해 교육
현장과의 연계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전북대학교의 공공성과 신뢰도 제고에
앞장섰습니다.

교육/학사

JBNU, CVM

전 세계 TOP100

수의과대학에 전북대 수의대 선정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선정하는 2025년 세계 수의과대학 순위가 발표됐다.

영국 왕립수의과대학이 미국 UC DAVIS 수의과대학을
제치고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세계 수의대 순위 100위 안에 포함됐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2025 QS 세계 수의대 순위 TOP100 진입

국내 3개 수의대 중 하나로 이름 올려... 연구 역량과 국제경쟁력 입증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영국 대학평가기관 **QS
(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5 세계
수의과대학 순위에서 전 세계 100위권에 진입했다.

올해 순위에는 전북대는 연구 영향력과 인용 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했다.

QS 세계대학평가는 △학술 평판(Academic Reputation)
△고용인 평판(Employer Reputation) △연구 영향력(H-
index Citations) △논문당 인용수(Citations per
paper)**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 대학을
평가한다. 2025년에는 여기에 해외 학생 비율과 장학금
제도 정보가 추가되어 평가의 다양성이 확대됐다.

전북대 수의대는 H-index 74점, 논문당 인용수 84.2점,
학술 평판 66점, 고용인 평판 53.8점을 기록했다. 특히
논문당 인용수와 연구 영향력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의학 연구의 질적 성장과 국제 공동연구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대학교는 최근 수의학 분야 연구 인프라 확충과
국제화 전략 강화에 힘써왔다. 연구중심대학으로서 BK21
(두뇌한국21) 사업, 대학중점연구소 사업, 기초연구실
사업 등 국가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학문
후속세대 양성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세계 대학평가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전북대 수의대는 수의공중보건, 실험동물의학,
임상수의학 등 다학제적 연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AI
기반 정밀의학, 반려동물 진단 기술,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연구 등 첨단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공공수의학으로 역량 강화와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QS 세계 수의대 순위에서 전북대의 100위권 진입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지방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연구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성과이자, 향후 글로벌 수의학
교육·연구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결과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앞으로도 “세계적인 연구
성과 창출과 교육 혁신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융합형
수의학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학년도 전기 수의과대학 학위수여식



전북대 수의과대학, 2024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은 2024년 2월 21일 수의과대학
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2024년도 전기 수의과대학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일정 학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졸업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유일정 학장은 “졸업생 여러분이 수의학의 전문
지식과 따뜻한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사회 곳곳에서
빛나길 바란다”라며 “전북대 수의과대학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세워달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졸업생 대표 김종익 학생은 “4년 동안 함께한 교수님과 동료들에게 감사드리며,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앞으로도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통해 글로벌 수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인재 양성에 힘을 계속 기울인다.

전북대, 수의대 학제 예1+본5로 개편

27년 만에 수의대 학제 변화, 25학년부터 곧장 적용.. 본과 마지막 학년 실습교육 확대에 방점

지난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2+본4로 고정됐던 수의대의 수업연한 규정이 삭제된 가운데, 전북대와 충북대가 수의과대학 학제를 예과 1년과 본과 5년(1+5학제)으로 개편했다. 1998년 수의과대학 6년제 전환 후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고정됐던 학제가 27년 만에 변경됐다.

마지막 학년에서의 실습 교육 시간 확보가 주요 목표다. 짝 차 있던 본과 과정에 1년의 시간을 더 부여하면서 재배치에 숨통을 틔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의학교육과 큰 연관이 없는 예과 교육 내용을 축소·개편한다. 충북대는 유럽수의학교육인증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으로도 활용한다.

전북대학교는 2월 24일, 자로 개정된 최신 학칙에 수의과대학 학제 개편이 반영됐다. 올해 입학한 2025학년부터 곧장 1+5 학제가 적용됐다.

내년 2025학번의 본과 진입을 앞두고 본과 5년의 교육과정을 보다 세밀히 다듬을 방침이다.

수의학과 연관성 적은 예과 과목 삭제..예1은 교양 위주로

마지막 학년 실습 교육 시간 확보..분야별 심화실습 도입
임상과목 통합실습,
organ system based lecture 시도 눈길

1+5학제에서는 예과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예과 과목의 축소·개편이 불가피하다.

전북대 수의대는 일반 화학·물리학·생물학 등 수의학과 관련성이 적은 과목은 과감히 삭제했다. 기존 예2에 배치됐던 수의학개론, 수의학용어 등을 예1로 내렸다.

예2에 있던 농산업 경제 경영학, 동물복지와 수의사, 국제수의법규 등의 과목은 삭제하거나 본과 후반부의 선택과목으로 재편했다.

기존 예과 2년의 73학점(전공36+교양37)은 1년 40학점(전공10+교양30)으로 변경됐다. 예과는 전공보단 교양에 주력하는 형태다. 기존 예2는 본1로 전환되며 본과 과목의 시작 시점을 앞당겼다.

이렇게 확보한 시간을 활용해 본과 과목을 하향 재배치한다. 마지막 학년인 본5의 실습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본4에 병원실습 과목이 있었지만, 본4 1·2학기에 걸쳐 임상 과목과 여러 전공선택과목이 있다 보니 로테이션이나 외부 실습에만 집중하기 어려웠다.

개편 1+5학제에서는 본4까지 내과·외과·영상의학과 등 임상 전공필수 과목 교육을 마친다.

본5 1학기에도 수의법규 등 일부 전공필수·선택과목이 있지만 병원실습 과목에 10학점을 부여해 무게를 실었다.

본5 2학기는 아예 이론교육 없이 심화 실습으로만 진행된다. 심화실습 1·2로 나누어 반려동물 임상과 농장동물임상·기초·예방수의학 실습 등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분야의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동물 임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실습 기회를 확보해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마지막 학년(본5)의 실습 비중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학제 개편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 과목들도 눈길을 끈다.

기존 본3 임상 과목 실습은 과목별 실습으로 진행됐지만, 개편 1+5학제에서는 본4의 ‘수의임상통합실습’으로 합쳐졌다. 이론 과목에서도 통합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organ system based lecture’ 과목이 본4에 배치됐다.

이 밖에도 수의법의학, 수의피부질환학, 외래성동물 의학 등 수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신 역량을 반영했다.

전북대 수의대 2025 수의사 국가시험 전원 합격

제69회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전북대 수의대가 응시생 전원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국가시험에는 외국대학 출신자를 포함한 557명이 응시해 540명(96.9%)이 합격했다.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의 올해 국가시험 응시·합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가 전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사 시험에 합격한 졸업 예정자는 이달 졸업하며 면허를 받아 수의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수의과대학 개교 73주년 기념 학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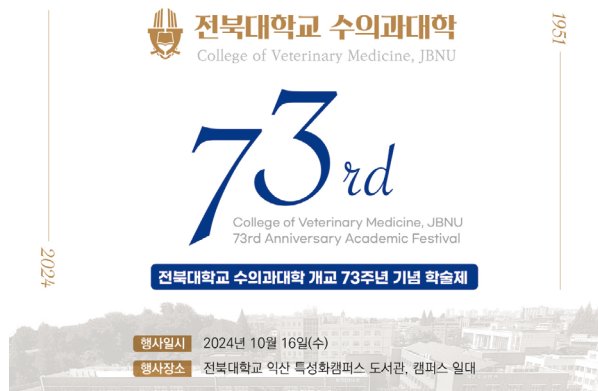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10월 16일(수) 익산 특성화 캠퍼스에서 개교 73주년 기념 학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제는 학부생 진로 특강을 시작으로 대학원생 학술발표회(Research fair), 개교 73주년 기념식과 함께 3T MRI 도입 기념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오전에는 학부생을 위한 선배들의 진로 특강이 전북 동물의료센터 김형년홀에서 열렸다. 동물행동학, 농장동물, 양봉산업, 임상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의 진로 강연을 펼쳤다.

같은 시각 도서관 스터디카페에서는 수의과대학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대학원생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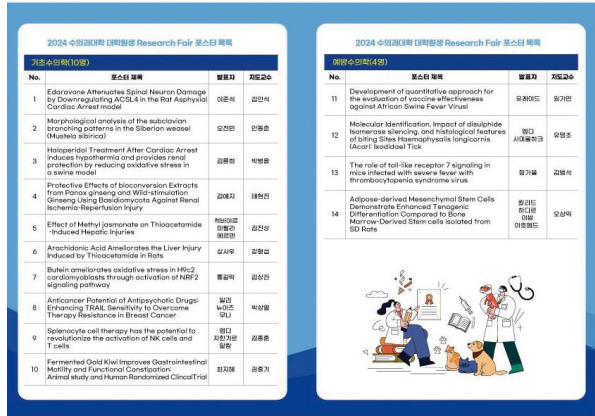
오후에는 개교 73주년 기념식 행사와 3T MRI 도입 기념 심포지엄이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연이어 진행됐다.



2024 수의과대학 대학원생 Research Fair 개최

개교 73주년 기념 학술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2024 수의과대학 대학원생 Research Fair에서는 기초, 예방, 임상 3개 분야 19명의 대학원생이 지원해 각자의 연구 포스터 및 구두 발표 등이 이뤄져 심도 있는 학문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번 학술 발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칼리드 하디르 이삼 아흐메드(수의예방의학), 우수상은 함가을(수의예방의학), 김은지(수의임상의학) 대학원생, 그리고 장려상은 이준석(수의기초의학) 대학원생을 포함한 16팀이 수상하였다.



2024 수의과대학 대학원생 Research Fair(영어학술논문 발표대회) 개최



2024 수의과대학 대학원생 Research Fair 행사가 한 번 더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리서치페어는 영어학술논문 발표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기초, 예방, 임상 3개 분야 12명의 대학원생이 본인의 연구성과를 영어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영어학술논문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칼리드 하디르 이썬 아흐메드(수의예방의학), 우수상은 김은지(수의임상의학), 알리 뉴아즈 무나(수의기초의학), 판반탁(수의예방의학), 유레이드(수의예방의학) 대학원생, 그리고 장려상은 엠디사미울하크(수의예방의학) 대학원생을 포함한 7팀이 수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전통문화체험 행사 진행

전주 한옥마을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행사가 2025년 2월 17일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수의과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전주의 역사와 음식,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대학 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행사는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해 지도교수, 직원, 조교 등이 참석하였다. 참가자들은 전통 한복을 입어보고 한정식을 체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문화 이해를 돕고, 유학생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동물행동의학·돼지·꿀벌 임상에서 전문동물병원까지..전북대 진로 특강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10월 16일(수) 전북동물 의료센터 3층 김형년홀에서 '제3회 진로 특강의 날'을 개최했다.

학부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특강은 같은 날 열린 개교 73주년 학술제 행사 중 하나로 마련됐다. 동물행동의학부터 돼지·꿀벌 임상, 반려동물전문 동물병원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 신윤주 교수



특강은 동물행동의학에 대한 신윤주 교수의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서울대 수의대에서 동물행동의학 박사를 졸업한 신 교수는 현재 전주기전대학 동물 보건의과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다.

신 교수는 동물행동의학의 정의부터 수의사의 역할, 극복해야 할 과제를 소개했다.

정상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단과 치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훈련만이 아닌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목했다.

행동의학에서 약물치료는 장기간 지속되는 만큼 보호자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수의사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에 적합한 사회 정책을 확립하는 것이 미래 수의사들의 역할이라는 점을 당부했다.

▼ 김송규 수의사



다음 연자로 나선 김송규 수의사는 국내 양돈산업의 현주소와 주요 질병 문제를 소개했다. 돼지생식기호흡기 증후군(PRRS) 케이스를 기반으로 돼지 수의사의 역할도 조명했다.

양돈 분야에 진출하게 된 계기와 돼지 수의사의 특징점을 소개하며, 농장동물 수의사를 꿈꾸는 학부생들을 위한 조언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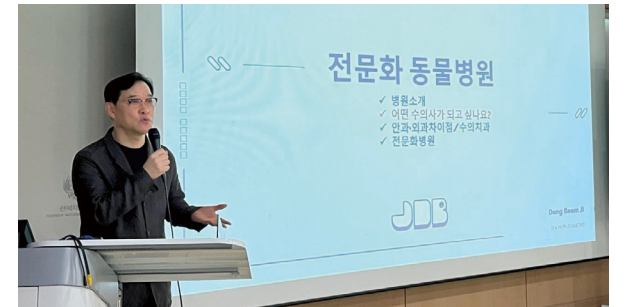
▼ 이성민 수의사



이어 수 가축병원 이성민 수의사의 '꿀벌과 꿀벌 수의사' 강연이 진행됐다. 양봉과 봉산물의 개념부터 꿀벌의 공익적 가치까지 소개하면서 꿀벌의 질병, 영양, 사육 관리를 위한 수의사의 역할을 조명했다.

꿀벌의 이동을 통제할 수 없는 만큼 차단방역이 어렵고, 각종 병원체의 복합감염은 많은데 약물 오남용도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이 도입되면서 꿀벌 수의사의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수의과대학에서도 꿀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지동범 원장



마지막 강연은 안과·치과 전문 지동범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지동범 원장이 연자로 나섰다. 아시아 수의 안과전문인인 지 원장은 서울대 외래교원과 전북대·경상국립대 겸임교수직도 맡고 있다.

지 원장은 전문병원의 장점을 소개하며 임상에서 전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 과목의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고려하면서도 수의 분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 원장은 ‘의학에서 오늘 진실이었던 것도 내일은 아니게 될 수 있다’라며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마쳤다.



전북대 수의대, 로얄캐닌 엠베서더와 함께 노령 반려동물 위한 영양학 조명



전북대 수의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령 반려동물을 위한 실전 영양학’ 세미나가 4월 8일(화) 전북대학교 동물의료센터 김형년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수의과대학에서 활동 중인 로얄캐닌 엠베서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북대 엠베서더인 박찬휘 학생(본4)이 직접 기획과 진행을 맡았다.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8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노령 반려동물 영양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세미나는 노령 동물의 영양학적 개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문을 열었다. 자연스러운 퇴화 과정인 노화를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항산화제 활용과 식욕부진 극복을 노령기 사료의 핵심 요소로 지목했다.

최근 미국동물병원협회(AAHA) 가이드라인이 내원 환자에 대한 영양학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주목하며 영양학적 평가 방법과 보호자 문진의 중요성을 함께 조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로얄캐닌 대외협력부 광영화 책임수의사가 참여해 영양학뿐 아니라 관련 진료에 관한 질문에 답했다.

세미나를 진행한 박찬휘(본4) 학생은 “학생 입장에서 바라본 로얄캐닌에 대해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많은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학생들과 광영화 수의사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여주은(본4) 학생은 “같은 학부생의 눈높이에서 설명해서 이해가 쉬웠고, 실제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 더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로얄캐닌 엠베서더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에 각 1명씩 활동 중이며, 반려동물에 대한 로얄캐닌의 가치와 철학을 알리고 영양학적 지식 교류에 힘쓰고 있다. 전북대에서는 지난해 11월 예과생을 대상으로 첫 세미나를 열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전북대·야마구치대, 수의대생 교환 프로그램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유일정)과 일본 야마구치대학교 수의과대학이 8월과 9월에 걸쳐 학생 상호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양 대학 모두 반려동물 임상뿐만 아니라 병리 부검, 특수동물·야생동물 진료 등 다양한 수의학 실습 경험을 교환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전북대 수의대생이 방문한 야마구치대학에서의 실습 사진. 광견병 카데바 부검에 앞서 모형을 활용하기도 했다.

전북대 수의대에 재학 중인 김지원, 최현호 학생(본4)은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야마구치 대학에서 다양한 수의학 교육 커리큘럼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야마구치대 동물병원(YUAMEC)에서 내과·외과·영상·임상병리 실습에 참여하는 한편 아키요시다이 사파리에서 염소 장제 및 채혈, 새끼 사자 분유 조제, 코끼리 채혈 참관 등 특수동물 진료 실습도 경험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 이어 야마구치 대학 남서쪽에 위치한 토키와 동물원도 찾았다. 알파카 채혈, 토끼 초음파 진단, 혈액 슬라이드 제작 등 실습을 진행하며 동물원 수의사의 하루도 체험했다.

야마구치대 4학년 학생들과 함께 광견병 카데바 부검에 앞서 모형 실습도 진행했다.

수의학 실습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도 병행했다. 시모노세키시의 가라토 시장, 아키요시 동굴, 모토노스미 이나리신사 등을 관광하며 일본 문화와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야마구치대 수의대생들도 전북대 수의대에서 다양한 실습을 경험했다.

이어 8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야마구치대에 재학 중인 다이스케 세리카와(6학년), 아야토 이마나가(4학년) 학생이 전북대를 방문했다.

학생들은 전북대 동물병원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한편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견학하며 한국의 연구 환경을 접했다. 병리학 부검 실습에 직접 참여하고, 전북대 수의대의 다양한 실험실과 교육 시설을 체험하기도 했다.

또한 전북대 전주 캠퍼스 투어와 함께 진안 마이산, 전주 한옥마을 등지에서 문화 탐방을 진행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막바지에 수료증을 수여 받으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전북대 교수진 및 학생들과 함께하는 만찬을 통해 교류의 의미를 되새겼다.

전북대 김지원 학생(본4)은 “전북대학교 덕분에 잊지 못할 마지막 여름방학을 보냈다.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수의과대학의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 흥미로웠다”라면서 “야마구치 수의과대학의 좋은 점을 어떻게 접목하면 우리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즐거운 고민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알게 되어서 알찬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대 수의대와 야마구치대 수의대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정례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일본·미국으로 학생 경험 넓히는 전북대 수의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유일정)이 일본, 미국으로 학생들의 실습 경험 무대를 넓힌다.

전북대 수의대는 지난달 19일 ‘글로벌대학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일본과 미국의 수의과대학 및 현지 동물병원과 협력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대 수의대는 일본 야마구치대학교, 미국 코넬대학교, Brookhaven 동물병원에 본과 3·4학년 재학생 6명을 파견한다. 학생들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약 2~3주간 각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Brookhaven Veterinary Hospital은 전북대 수의대 동문인 권진호 원장(제37회 졸업생)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모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일본 야마구치대학은 지난해에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꾸준한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코넬대학교는 QS 세계대학평가의 수의대 부문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유일정 학장과 박병용 교수는 학생들에게 “전북대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며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이번 경험이 훗날 후배들에게도 좋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북대 문경주(본4) 학생은 “한국과는 다른 임상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기대된다.”라며 “뜻깊은 기회를 주신 학교에 감사드리며, 글로벌한 감각과 능동적인 사고를 갖춘 수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의대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양성사업 '결실'

▼ 심세린 석사과정생

▼ 김명수 박사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유일정)이 운영하는 ‘제2기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심세린 석사과정생과 김명수 박사가 각각 야생동물 질병과 관련한 우수 연구로 국제학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전북대 수의대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중요한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심세린 석사과정생(지도교수 엄재구)은 최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17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Society of Conservation Medicine(ASCM)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심 석사과정생은 야생 박쥐의 파라믹소바이러스 특성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 박쥐에서 파라믹소바이러스의 분포와 유전자 특성 연구를 통해 국가 및 종 간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분석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과 잠재적인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 감시 체계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김명수 박사(지도교수 한재익)는 아시아 수의사회 연합학회 주최로 최근 열린 제23회 Federation of Asian Veterinary Associations Congress (FAVA)에서 사랑앵무 바이러스 연구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김 박사는 사랑앵무에서 발생하는 선위확장증바이러스 보균 사례 발표를 통해 이 바이러스가 해당 종에서 병원성을 나타내는지 조사했다. 이 연구는 특수동물과 반려조류의 질병 진단과 예방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려조 및 특수동물 질병 연구에 새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한재익 교수(수의대 수의학과)는 “이번 국제학회 수상은 전북대 특성화대학원이 길러내는 전문가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향후 지역 및 국제 사회에서 활발히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수의대는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사업에 2021년 첫 선정된 이후 올해 2기 사업에도 선정됐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및 동물질병진단센터 등과의 협력으로 야생동물 및 특수동물의 진료와 질병 진단, 연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수의대, 야생동물 질병 전문 인력 양성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환경부가 야생동물 질병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2기 사업에 참여한다.

특성화대학원 사업은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도입돼 최근까지 3년간 1기 사업이 이어졌다.

전북대는 지난 1기 사업에서 충북대, 제주대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했고, 대학원 교육과정 개설과 전북대가 위탁 운영하는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우수한 현장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인정받아 2기 사업에서 3년 동안 10억 5천만 원의 최대 지원금을 확보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2기 사업 공모를 실시해 전북대를 비롯해 강원대, 서울대, 충북대 등 4곳의 수의대를 선정하고 9월 12일 서울에서 제2기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정 대학들은 대학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연계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인력 양성 워크숍을 개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에서도 발생하는 현안 질병과 인수공통감염병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야생동물의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특성화대학원이 개설한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연구할 수 있고, 병리학이나 미생물학 등 자기 전공을 반영해 야생동물 질병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룰 수 있는 개방성과 강점이 있어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2기 사업에서는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으로도 지원을 확대해 이들이 한국의 특성화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된다.

1기와 2기 사업 책임자인 한재익 수의대 교수(전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는 “야생동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에 이 사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향후 야생·특수동물 분야의 확대에 따라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년 수의과대학 농장동물 교육 지원사업, 평창에서 성공적 진행

2025년 5월,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농장동물 임상 교육을 위해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수의과대학 농장동물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장동물(산업동물) 진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실습과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은 1차(5월 20일~22일)와 2차(5월 27일~29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축우, 양돈, 가금 등 주요 축종별 임상실습 교육 과정과 교재 개발 및 보완이 함께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직접 진료 및 방역 실습 경험을 통해 농장동물 전문 수의사로서의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이번 사업은 졸업 후 농장동물 분야 진출을 확대하고, 현장 방역 강화 및 가축 전염병 대응 역량 제고, 축산식품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의과대학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농장동물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계속 기울인다.



다양한 경험 제공하는 전북대 야생동물 실습 프로그램

여름·겨울 방학마다 2회차씩 4~5주 실습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센터장 한재익)가 2025 동계 학생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전북 지역 야생동물 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방생에 힘쓰고 있다.

야생동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매년 여름방학(5주)과 겨울방학(4주)을 활용한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동계 실습은 4주씩 두 차례에 걸쳐 이어진다. 12월 30일부터 4주간 진행될 1차 실습에 3명, 2월 3일부터 이어질 2차 실습에 4명이 참여한다. 이미 지원 및 선발을 완료했다.



실습생들은 야생동물의 구조, 검사와 치료, 사육과 재활 등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업무 전반을 실습할 수 있다. 프로그램 마지막 주에는 야생동물을 주제로 관심 있는 분야를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는 자체 세미나도 진행된다.

국립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외부 초청 강연도 마련된다. 오는 1월 8일(수)에는 강원대 안상진 교수가 '산양 복원 사업'을, 2월 5일(수)에는 충북대 김성룡 박사가 '특수동물 임상'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외부 초청 강연은 실습 프로그램 참여자 외에도 전북대 수의대 재학생이면 누구든지 수강할 수 있다.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앞으로도 꾸준히 학생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해 야생동물 생태 및 수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의학과 3학년, 한국마사회 장수 경주마 육성 목장 현장실습 진행



수의학과 3학년 학생들이 4월 25일 한국마사회 장수 경주마 육성 목장에서 "산업동물 임상실습 및 견학"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이번 실습은 말 수의학의 실제 현장을 체험할 기회로, 학생들은 한국마사회에 근무 중인 말 전담 수의사로부터 주요 임상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며, 주요 질병의 검사·진단·치료 과정을 직접 실습했다.

또한 말의 번식과 관련하여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청취했고, 말 동물병원 시설을 견학하며 기본적인 치료 실습도 병행했다.

학생들은 이번 실습 경험을 통하여 말 수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진로 설정에 있어 실질적인 통찰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현장실습 통해 수의사의 역할 조명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을 5월 7일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였다. 이번 실습은 수의사의 공공분야 역할과 현장에서의 책임감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실습은 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주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수의사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연구원 측은 지역 보건과 환경 분야에서 수의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맡고 있는 위치와 책임감에 대해 강조하였고, 수의사로서의 자부심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졌다.

또한 실제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실험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현장 업무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보람된 에피소드도 공유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실습은 수의사의 다양한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공공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활동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기회가 되었다.



전북대 수의대생,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분소서 현장실습 통해 전문성 강화



수의대생들,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분소서 현장실습 진행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5월 14일 안전성 평가연구소 전북분소(국가독성과학연구소)를 방문해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습은 독성학 및 실험동물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의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볼 기회가 마련되었다.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국가독성과학연구소의 설립 취지와 주요 연구 역할에 관해 설명을 들었으며, 연구소 내 수의사의 업무와 전문성,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감과 직업적 자부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실험동물의 사육 환경과 연구과제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과 전문 소양에 대해 체험했다.

이번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수의학이 임상 분야뿐만 아니라 독성학, 공중보건,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전 방역 배웠다” 김천 농림축산검역본부서 가축전염병 대응 실습 진행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현장 대응 체계를 배우는 실습 프로그램이 5월 7일 김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가축 질병 예방부터 진단, 방역, 국제 협력까지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았다. 프로그램은 ▲방역 관리 ▲백신 관리 ▲질병 진단 실험실 참관 ▲국제 협력의 4개 분야로 구성됐다.

현장 방역 절차, 시뮬레이션으로 학습

방역 교육에서는 의심 가축 신고부터 출동, 검사, 통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식과 소독제 종류 및 사용 기준도 함께 배웠다.

백신 관리 실습 통해 품질 관리 체계 이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의 공급·보관·배포 과정을 실습하며, 보관 조건과 유통기한 확인 등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익혔다.

진단 실험실 참관...PCR 분석 과정 확인

질병 진단 실험실에서는 ELISA, PCR 등의 검사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구제역 바이러스 샘플의 분석 절차를 배웠다. 실험실 방역 수칙과 생물안전등급(BSL) 기준도 함께 교육받았다.

국제 협력 체계 이해...OIE-FAO 역할 학습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과의 협력 체계 및 해외 악성 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 방안에 대해서도 학습하며 국제적 시야를 넓혔다.

이번 실습 경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실전 감각을 키우고, 미래 방역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대학 6개중 수의전염병학연구실, 정부 안전 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6개 연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4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심사에서 인증을 획득하며 안전 관리 우수대학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번에 안전 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에 선정된 연구실은 수의 전염병학 연구실(연구책임 엄재구 교수) 외 6개 연구실이다.

안전 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연구실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자와 실험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연구실 환경, 장비 관리, 안전 교육·훈련 등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전북대는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본부가 안전 관리를 우선 과제로 선정해 연구실의 안전 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번 성과는 이러한 대학의 안전 중심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실제로 전북대는 각 연구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먼저, 연구실별 안전 점검과 개선 계획 수립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연구자와 실험 참여자의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신 안전 장비와 보호구를 도입해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과 모의 훈련을 통해 연구자들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연구실 안전 전담 부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연구실 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연구실 운영 매뉴얼을 보다 간소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 연구자들이 안전 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최근 인증 획득 연구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열어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양 총장은 “이번 성과는 연구실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연구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북대 수의학과 이성주, ‘2025 JBNU-G 우수연구자’ 선정

▼ 이성주 박사과정생



▼ 김은지 학생



글로벌 연구 역량 인정받아 총장 표창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수의학과 박사과정 이성주 학생과 김은지 학생 (지도교수: 유일정) ‘2025 JBNU-G 우수연구자’로 선정됐다.

이번 포상은 교육부의 4단계 BK21 FOUR 대학원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연구 실적을 거둔 대학원생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주 학생은 수의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대학교 총장 표창과 함께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2025 JBNU-G 우수연구자 포상 수여식’은 지난 5월 26일 오후 4시 전북대에서 개최됐으며, 양오봉 총장이 직접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다. 김성민 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성주 학생은 “지도교수님과 연구실 동료들의 도움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김은지 학생은 “앞으로도 수의학 연구를 통해 동물복지와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포상이 대학원생들에게 연구 몰입의 동기를 부여하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이성주 학생을 포함해 박사과정 재학생 7명, 박사수료생 13명 등 총 20명이 선정됐다. 전북대학교는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수학술발표상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장문선 대학원생이 2025년 한국임상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된 여러 연구 가운데 우수 학술발표상을 수상하였다.

▼ 장문선 학생



장문선 학생은(지도교수:윤학영, 이기창) Measurement of Renal Length and Cortical Thickness Using Ultrasound in Korea Raccon Dogs라는 제목으로 한국 너구리의 신장 초음파 영상을 분석하여 신장 길이와 피질 두께의 기준값을 국내 최초로 제시했다. 이 측정값들은 성별이나 체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향후 너구리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문선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이번 연구가 야생동물 진단 및 치료 분야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수의대 연구원들,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상 대거 수상

▼ 문선재 석사과정생



▼ 조운채 석사과정생



▼ 배다운 박사



▼ 조호성 교수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이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47차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요 학술상을 휩쓸며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북대 수의학과 문선재석사 과정생이 최우수 구두 발표상을, 조운채 석사과정생이 최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배다운 박사후연구원이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세 명 모두 조호성 교수 연구팀 소속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을 주제로 한 연구 성과로 호평을 받았다.

문선재 석사과정생은 'Serological detection of Mycobacterium bovis and Mycobacterium avium complex (MAC) in domestic sows and wild boars in Korea'라는 주제의 구두 발표를 통해 국내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 결핵균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를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문 석사과정생은 사람에게서 결핵이 증가하고, 동물에게서 결핵 발생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들어 멧돼지와 돼지의 결핵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조운채 석사과정생은 'Application of Interferon-γ Release Assay (IGRA) for Diagnosing Bovine Tuberculosis in Korean Native Black Goats'를 통해 국내 재래 흑염소에서 결핵 발생률을 조사했다. 이 연구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에 대한 염소의 검사 필요성을 제시해 염소를 통한 결핵 확산 방지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배다운 박사는 'Serological and molecular prevalence of small ruminant morbillivirus (SRMV) infection in Korean water deer and native black goat'라는 주제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1종 가축 전염병인 가성우역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결과를 제시했다. 배 박사는 고라니와 재래 염소를 대상으로 혈청 및 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을 보여 아직 가성우역이 국내에서는 청정 상태임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들을 지도한 조호성 교수도 이번 학회에서 최근 5년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최다 인용된 논문 저자에게 수여하는 학술상을 수상하여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았다.

한편, 'One Health, 수의사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초청 특강과 함께 16편의 현장연구 논문과 65편의 포스터가 발표됐다. 전국 17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수의사회, 전국 수의과대학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동물위생학회는 '건강한 동물,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을 모토로, 동물 질병 방역과 공중보건, 반려동물 복지,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의학 연구를 통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처음 맡아본 수의학의 냄새

2025 실습후기 공모전 [특별상] 전북대 김정진



'수의사는 하나의 종만 다룰 수는 없다'라는 교수님 말씀을 인상 깊게 듣고, 학창 시절 목표는 '최대한 많은 종을 접해보는 것'이 되었다. 야생동물 이외 분야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종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자주 찾아가던 수의대생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Live4Now의 존재를 알았다.

블로그에는 구조 동물에 대한 처치, 광견병 예방을 위한 봉사, 파충류 치료 경험 등 이국적인 동물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경험담이 적혀 있었다.

단순히 동물을 구경하고 만져보는 것이 아닌, 예방주사 접종이나 마취에 대한 설명 등 실제 임상에서 쓰이는 지식을 얻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다.

IVSA 연계로 전달되는 공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직접 Live4Now 홈페이지로 들어가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프로그램은 2주 코스(14일)와 풀 코스(19일)로 나뉘며 자신이 체험하고 싶은 경험, 학교의 방학 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선택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코스를 선택해 신청하면, 작성한 이메일로 담당자가 신청 양식을 전송한다.

홈페이지: <https://www.live4now.co.za>

담당자 이메일: melissa@live4now.co.za

신청 양식에는 이름, 학교, 나이, 지원하게 된 이유, 고려해야 할 식이 등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적어야 한다. 신청 양식을 채워 담당자에게 보낸 후 비용과 함께 여행보험 서류까지 전달하게 되면 아프리카로의 일정이 확정된다.

또한 프로그램 일정 중 광견병 예방 봉사가 포함되어 있어 광견병 예방접종이 권장되며, 추가로 파상풍 예방주사와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 현지에서 진행된 광견병 예방접종 봉사



한국은 광견병이 흔하지 않아 백신이 없는 병원이 많은 뿐만 아니라, 간격을 두어 총 3번 접종해야 해서 출국 2~3달 전에는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여유롭다.

· 실습을 추천한다면



우선 이국적인 동물, 특히 조류와 파충류를 좋아하고 또 그쪽 분야 수의사가 되길 희망하는 분에게 적극 추천한다.

Hodespruit reptile centre에서 직접 도마뱀과 뱀 등 다양한 파충류를 만져볼 수 있고 부검까지 해보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교육을 맡은 분이 실제 야생동물 수의사로 활동하고 있어 응급상황, 마취, 종별 특성, 보정 등 다양한 것을 배우며 질문할 기회가 많다.

학교 내에서는 파충류 관련 실습 기회가 없고 실습이 가능한 병원의 수도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의 부검과 강의는 특수동물 분야 진로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동물원 수의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추천한다. 강의를 담당한 수의사분은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벌꿀오소리, 사자, 치타, 하이에나, 쿠두, 하마 등 온갖 동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하나의 종만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치료 대상을 만났을 때 '동물'이라는 넓은 범위 안에서 치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경험이 유익했다.

또한 해부와 부검도 같은 수의사님의 주관 아래서 진행되는데 자세한 설명과 함께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신다. 코끼리 심장, 영양, 하이에나 등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동물을 관찰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 코끼리 심장 해부



수의과대학, 통영서 교직원 워크숍 개최... 학사제도·교육과정 대대적 개편 논의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은 2월 3일 경남 통영에서 교직원 워크숍을 열고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개정, 전공 교육과정 개편 등 주요 학사제도 개편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학칙 개정 ▲학사운영규정 개정 ▲전공 교육과정 개편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으며, 특히 수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었다.

학칙 개정안에는 수업 연한과 휴학 기간, 졸업 및 수료 학점 등의 조항 정비가 포함됐다. 또한, 학제 개편에 따라 수의예과 수료와 휴학 후 복학·재입학·유급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가 명시되었으며, 이는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학사운영규정 개정에서는 수의예과 및 수의학과와 학수구분별 졸업 이수 학점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전공 이수 체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학생들의 학업 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공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는 폐지 및 변경 과목에 대한 동일대체 과목 지정 등 교육과정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워크숍에서는 건국대학교 남상섭 교수의 수의학 교육 개편 방향에 대한 강기도 진행되며, 국내 수의학 교육의 변화 흐름과 미래 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일부 개정된 학칙에 따라 수의사 국가시험에 임상술기 시험이 추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실습 중심 교육이 강화된다. 기존 총 51학점이던 실습과목은 개편 후 총 62학점으로 확대되며, 예과 실습은 폐지되고 본과 5학년에 28학점의 실습과목이 신설되는 등 실습 배분이 조정됐다.

또한 학생들의 전문 지식 습득과 전공과목의 순차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존 '수의예과 2년 + 수의학과 4년'의 학제를 '수의예과 1년 + 수의학과 5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 개편된 학제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이번 학제 및 교육과정 개편은 수의사 국가시험 변화와 수의학 교육의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 수의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단양 워크숍 통해 국제 인증 추진 방향 논의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교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의 교육 품질 향상과 국제수의학교육인증(EAEVE)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구성원 간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워크숍 첫날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시작으로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나기정 교수의 국제인증 관련 특강이 진행됐다. 나 교수는 "EAEVE(European Association of Establishments for Veterinary Education)는 유럽 수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국제기구로, 졸업생의 국제적 경쟁력과 교육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대의 EAEVE 인증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수의과대학이 갖춰야 할 임상 교육 기준과 인증 절차, 교육과정 개선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특강에서는 유럽의 수의학교육 평가시스템(ESEVT)의 구조와 기준을 비교하며, 한국의 수의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진은 국제 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임상실습 확대,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인 실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향후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둘째 날에는 단양 고수동굴 탐방 등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교원 간 친목을 다지고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EAEVE 인증을 비롯한 글로벌 수의학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봉사/대외협력

JBNU, CVM

[2024 국경 없는 수의사회 라오스 봉사 후기] 전북대 수의대 김태현



2024년 국경 없는 수의사회 라오스 해외 봉사에 참여한 전북대학교 본과 4학년 김태현입니다.

저는 이번에 국경 없는 수의사회를 통해 처음으로 동물 의료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의대 학부생으로서 봉사 동아리나 모임 등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일상이 바빠 매년 우선순위에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1년간 휴학을 하고 학생 인턴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다 함께 유기견 센터로 봉사를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봉사가 주는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다 함께 봉사한다는 것이 정말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후로부터 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알아보게 되었고, 마침 국경 없는 수의사회의 공고를 보고 이번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를 하며 저에게 감명 깊었던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는 국경이 없다"입니다. 국경 없는 수의사회의 미션이기도 하지만 국경을 넘어 라오스에서 이 말을 들으니 새로웠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아도 마음이 맞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더 감명 깊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전공은 봉사를 하기위한 수단이다"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에게 봉사는 수의사가 되기 위해 배우러 가는 목적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위한 수단인지, 봉사가 수단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인생에서 제 직업이 목표가 되어선 안 되고 이를 통해 봉사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활기를 불어넣는 힘이 있다는 것을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돌아와 바로 출근한다고 하시던 원장님의 표정에서, 시험 전날만 아니면 무조건 봉사에 간다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제가 앞으로 찾아야 할 활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봉사에 큰 뜻이 없는 친구들도 한 번쯤 이 활기를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북대 수의대 봉사동아리 '소복소복', 지역사회와 함께 동물 의료 봉사 실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봉사동아리 '소복소복'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6일, 전북수의사회 동물 의료 봉사단 (단장 김민석)과 '소복소복' 동아리 학생들은 완주군에서 2025년 첫 동물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다. 완주군의 협조를 받아 버섯 재배 농원 일대에서 보호 중이던 개 19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과 내장형 동물등록을 진행했다. 이 지역은 공식 보호소가 아님에도 유기견이 모여 40여 마리로 불어난 상황으로, 동물 보호 단체의 요청에 따라 봉사가 마련됐다. 봉사단은 유기 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을 모았다. 김민석 단장은 "농원 주인이 성실히 동물을 돌본 덕분에 순조롭게 봉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향후 포획되지 않은 유기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중성화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복소복'은 전북대 수의과대학을 대표하는 봉사 동아리로,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16개 봉사동아리가 모인 전국 수의과 대학 봉사 동아리 연합회(수봉연)의 일원이다.

'봉사하는 수의대생 모두 모였다' 전국 수의과 대학 봉사 동아리.

수봉연은 지난 3월 8일 공식 출범해 봉사 네트워크와 활동 메뉴얼,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복소복' 역시 이 연합회 활동을 통해 전국 수의대생들과 봉사 경험을 교류하고, 보호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소복소복'은 여름 연합 봉사활동과 보호 동물 의학 세미나, 봉사 심포지엄 등 다양한 연합 행사에 참여하며 동물 의료 봉사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야생 동물 구조 관리 센터, 멸종 위기종 올빼미 자연 방생

전북대학교가 운영하는 전북 야생 동물 구조 관리 센터 (센터장 한재익)가 10일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 인근에서 구조해 치료를 마친 올빼미를 자연으로 방생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와 전북 특별 자치도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야생 동물 보호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함께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제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방생된 올빼미는 지난 4월 20일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인근 도로변에서 어미를 잃은 채 시민의 제보로 구조됐다. 구조 당시 어린 개체로 탈진 상태였으며,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등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센터는 올빼미를 즉시 이송해 진료와 혈액 검사, 치료는 물론 비행 훈련을 포함한 체계적인 재활 과정을 진행했다.

회복을 마친 올빼미는 이날 방생과 함께 힘찬 날갯짓으로 자연으로 돌아갔고, 이를 지켜본 학생들과 관계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응원했다.

한재익 전북 야생 동물 구조 관리 센터장은 “이번 방생은 단순한 구조와 치료를 넘어, 생태 복원이라는 큰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야생 동물이 건강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개소한 전북 야생 동물 구조 관리 센터는 멸종 위기종 및 보호종을 포함해 매년 1,000마리 이상의 야생 동물을 구조·치료하고 있으며, 생태 교육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형 보호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반려 동물 스트레스 완화 콘텐츠, 수의학 치료에 활용



동물 행동학 연구소 공동 설립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동물의료센터장 신기욱 교수)과 반려 동물 스트레스 완화 전문 OTT 서비스 ‘해피독 TV’(대표 곽상기)는 수의학 치료 분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정식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북대 수의대 내에 ‘동물 행동학 연구소’를 공동 설립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능성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성과

전북대학교 수의과 대학 박철 교수(전북대 글로벌 대학 사업 JUIC 펫바이오·동물의약품 분과장)는 “지난 10여 년간 해피독 TV와 협력해 반려동물의 행동 특성에 맞춘 기능성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해 왔다”며, “돼지 실험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했으며, 현재는 사람 대상 스트레스 저감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완적 치료법으로의 확장 가능성

박 교수는 이어 “민감성 성격, 분리 불안, 호흡기·심장 질환 등을 지닌 반려동물의 보완적 치료법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치료법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동물 복지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해피독 TV는 삼성·LG 스마트 TV, 아마존 파이어 TV, 구글 안드로이드 TV, Roku TV 등 주요 플랫폼을 통해 ‘Daycare’와 ‘Sensitive Care’ 두 가지 채널을 전 세계 반려 동물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AI 기반 공동 연구 확대

양 기관은 이번 MOU를 계기로 AI 기술을 접목한 공동 연구를 더욱 확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유익한 디지털 치료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물 복지 실현과 수의학 치료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야생 동물 구조 관리 센터, 멸종 위기종 독수리 구조·치료 자연 방사

환경부와 전북 특별 자치도가 지원하고 전북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전북 야생 동물 구조 관리 센터 (센터장 한재익교수)가 멸종 위기종 II급 야생 동물인 독수리 (천연기념물 제243-1호) 2마리를 구조·치료해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독수리는 매년 포골 지역에서 우리 나라를 찾는 대표 겨울철새이며, 주로 죽어있는 사체를 먹다가 농약 중독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독수리는 2월 27일 김제시 공덕면과 3월 14일 김제시 만경읍에서 원인불명의 이유로 날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구조됐었다.

구조 후 센터에서는 신체 검사, 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 분변 검사 등을 진행하였고, 출혈성 장염과 더불어 농약 중독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해독제 및 항생제 투약 그리고 수액 치료가 이어졌다.

한재익 전북 야생 동물 구조 관리 센터장은 “전북 지역에서 구조되는 독수리나 수리부엉이 등 멸종 위기종이나 천연 기념물 야생 동물을 구조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사 행사를 통해 자연 보호의 가치를 알리고, 야생 동물이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 수의대, 베트남 빈대학에 첨단 축산·수의학 실습실 개소 및 베트남 봉사

▼ 전북대, 베트남 빈대학에 첨단 축산·수의학 실습실 개소



전북대학교는 베트남 응에안성에 위치한 빈(Vinh) 대학에 첨단 축산·수의학 실습실을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대는 2023년 개발 도상국 대학들의 교육과 역량 강화를 돕는 국제 협력 선도 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된 뒤 빈대학과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전북대는 이번 실습실 개소를 계기로 수의·축산 분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등 베트남 축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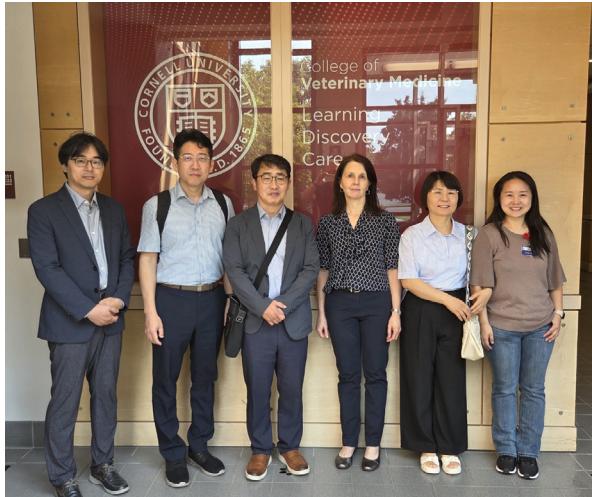
김남수 전북대 베트남 사업 단장은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현지 교수진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빈대학이 베트남 축산·수의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의과대학이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에서 해외 동물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2025년 8월 2일부터 12일까지(9박 11일) JBNU 국제협력선도대학 베트남 사업단 제3기 해외 봉사단으로 참여해 베트남 빈(Vinh)대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현지 반려동물과 가축을 대상으로 한 의료 봉사, 수의학 교육 봉사 및 멘토링, 지역 학생들과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를 통해 전북대 수의대 구성원들은 수의학 전문지식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미국 대학·일선 동물 병원서 글로벌 실습 기회 만든 전북대 수의대



전북대학교 수의과 대학 학생들이 미국 현지 동물 병원에서 실습 기회를 잡았다. '글로벌 대학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실습 프로그램은 미국 코넬 대학교 수의과 대학과 브룩 헤이븐 동물 병원에서 진행됐다.

본과 3~4학년 재학생으로 구성된 실습생 4명은 7월말부터 8월초에 걸쳐 각각 2~3주간 실습 동물 병원에서 미국의 수의학 교육과 진료 현장을 체험했다.

코넬 대학교 수의과 대학 Duffield Institute of Animal Behavior(동물행동의학과) 익스텐션에 참여한 학생들은 진료에 깊이 참여해볼 수 있었다.

환자의 진료 차트를 검토하고 보호자에게 직접 질문할 목록을 작성하고, 감별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해 교수진 및 레지던트와 토론하는 경험을 쌓았다. 초진·재진·원격 진료 등 다양한 진료 형태에 참여하며 행동 의학적 접근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 실습 기간 중 금요일마다 진행된 '저널 클럽 토포 라운드'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관심 분야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질문을 가려내고, 감별 진단 목록을 체계적으로 세우며, 행동학적 치료 계획을 직접 수립해보는 과정을 겪어볼 수 있었다.

전북대 수의대 동문인 권진호 원장이 운영하는 브룩 헤이븐 동물병원에서는 2주간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을 참관했다. 단순 참관을 넘어 기본적인 술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또한 생리학, 외과학, 임상 실무와 관련된 이론 교육을 병행하며 실습 효과를 높였다.

실습생들은 "코넬대에서는 진료 과정에 바로 투입되어 치료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고, 브룩 헤이븐에서는 원장님이 직접 1대1로 지도해주셨다"며 두 기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북대 수의대 박선영 학생(본3)은 "미국에서 보낸 3주는 더 좋은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다잡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신 브룩 헤이븐 동물병원 원장님, 코넬대 교수님과 레지던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전북대학교 수의과 대학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대 수의대는 글로벌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임상 역량과 국제적 감각을 높이는 동시에, 세계 수의학 교육 및 진료 현장과의 연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관

JBNU, CV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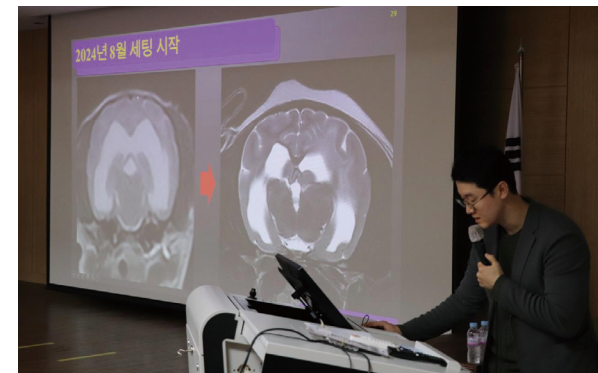
더 작은 구조를 더 선명하고 빠르게..초소형견 관절 인대까지 촬영

전북대 3T MRI 도입 기념 심포지엄. 진료·연구 협력 기대

전북대학교 수의과 대학이 10월 16일(수) 익산 특성화 캠퍼스 도서관에서 3T MRI 도입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4전 5기 끝에 도입한 3T MRI를 기반으로 일선 동물 병원 및 연구진과의 협력을 기대했다.

▼ 2009년 국내 수의대 최초로 도입했던 0.25T MRI(좌측)에서 3T(우측)로의 개선을 소개한 윤학영 교수



국립대 고가 기자재 지원 사업 도전 '4전 5기'

전북대 동물 병원(전북 동물 의료 센터)은 지난 2009년 국내 대학 동물병원에서 최초로 MRI를 도입했다. 첨단 3T MRI 도입에서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이날 도입 경과를 소개한 전북대 윤학영 교수는 "국내 대학 동물 병원 중 처음으로 MRI를 도입해 유용하게 활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국내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동물용 MRI가 됐다"면서 "외부에 마련된 MRI의 성능이 더 좋아지다 보니 케이스도 줄었다"고 말했다.

노후화된 MRI 교체 필요성을 느낀 전북대는 3T MRI 도입을 목표로 교육부 지원 사업에 도전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으로 고배를 마셨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2024년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20억원을 지원받았다.

입찰을 거쳐 선정한 도입 기기는 유나이티드 이미징사의 3.0T uMR 780 모델이다. 윤학영 교수는 "국내 수의계에는 우리가 최초 구매 사례일만큼 생소한 기업이지만, 미국·유럽에 널리 보급됐고 MRI에 들어가는 마그넷을 직접 제조하는 기술력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 유나이티드 이미징 3.0T uMR 780



별도의 준비실 설비와 다양한 코일을 갖췄다

3T MRI 신규도입을 위해 6월부터 영상실 리모델링 공사를 벌였다. 1개 조정실에서 양측에 배치된 3T MRI와 CT를 같이 촬영할 수 있도록 효율화하는 한편 뇌척수액 채취나 마취 등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준비실도 마련했다.

준비실 테이블은 MRI 촬영실에 들여보낼 수 있는 재질이면서 높이조절이 가능해 대형견이나 호랑이, 사자 등 대형 포유류까지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MRI 촬영 중인 환자의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을 조정실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무선 장비도 구비했다.

각종 동물, 상황에 맞게 촬영할 수 있도록 특수 코일도 충분히 구성했다. 자유롭게 접을 수 있어 동물에게 활용하기 좋은 수퍼 플렉스 코일, 래트(Rat)나 마우스(Mouse)를 위한 초소형 코일까지 갖췄다.

윤학영 교수는 "8월부터 세팅을 시작해 실제 환자 대상 촬영은 한 달 정도 진행했다. 향후 반려동물 환자의 관절, 복강, 심장뿐만 아니라 작은 실험동물 촬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협진과 연구협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왼쪽 위부터) 전북대 이기창·윤학영, 충북대 최치훈, 서울대 윤정희 교수



1.5T 대비 SNR 2배..더 작은 구조도 더 선명하게

3T MRI는 1.5T에 비해 두배의 신호대 잡음비(SNR)를 제공한다. 그만큼 해상도도 높고 더 작은 병변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뇌, 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의 해부학적 구조를 관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더 높은 자기장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만큼 촬영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오래 마취하기에 부담이 있는 환자에 더 강점이 있는 셈이다.

fMRI나 자기공명분광법(MRS), 확산텐서영상(DTI) 등 신경계 질환이나 종양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날 의학에서의 3T MRI 활용 현황을 소개한 충북대 의대 최치훈 교수는 “사람보다 동물의 뇌나 관절이 더 작은 만큼 3T MRI가 유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학영 교수는 “기존에는 촬영이 어려웠던 말초신경이나 초소형견의 관절 인대 등도 촬영할 수 있다”면서 “중추신경계 촬영에서 원인을 찾기 어려워 벽에 부딪혔던 케이스도 더 진단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T MRI 도입을 계기로 한국 수의 영상 의학의 과거와 미래를 조명한 서울대 윤정희 교수는 “영상 의학은 촬영 기술(modality)의 발전에 따라 변화해 왔다”며 “3T MRI와 같은 더 좋은 장비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교육에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정희 교수는 인공지능, 원격 판독, 인터벤션 등 영상 분야의 이슈를 지목하면서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의 영상 의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의 등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북 동물 의료 센터 신기욱 센터장은 “국내 수의대에서 최초로 도입된 3T MRI는 수의대의 임상 교육과 진료 서비스 강화, 일선 동물 병원과의 협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리산에서 야생 동물 질병 전문가를 꿈꾸다

전북대·충북대·제주대, 야생 동물 질병 전문 인력 양성 워크숍 개최

전북대·충북대·제주대가 함께 야생 동물 질병 전문 인력 양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6월 26일(목)과 27일(금) 양일간 구례 지리산 리조트와 지리산 국립 공원에서 이어진 워크숍은 모집 공고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첫날 지리산 리조트에서는 야생 동물 구조와 질병 관리 체계, 치료 및 중 복원 활동 사례를 연이어 소개했다. 이튿날에는 지리산에 위치한 반달 가슴곰 생태 학습장, 국립 공원 야생 동물 의료 센터, 지리산 반달 가슴곰 공존 센터 등을 견학했다. 야생 동물 중 복원 연구에 유용한 지리 정보 활용을 접해볼 기회도 마련됐다.



워크숍의 문을 연 한재익 전북대 교수는 국내 야생 동물 구조 치료와 관련한 체계를 소개했다.

국내 야생 동물 구조 치료 센터는 전국적으로 17개소다. 모두 동물 병원이다. 대학이나 지자체, 공단 등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야생 생물법과 자연 환경 보전법에 근거한 구조 치료 센터는 조난·부상 당한 야생 동물의 구조·치료·재활을 담당한다. 아울러 각 센터의 특성화에 따라 2차·3차 진료나 야생 동물 질병 연구, 생물 자원 보존·관리도 병행한다. 천연 기념물 동물을 치료하거나, 유기된 외래 야생 동물을 임시 보호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제3차 자연 환경 보전 기본 계획, 제4차 야생 생물 보호 기본 계획, 제2차 야생 동물 질병 관리 기본 계획 등이 정책적으로 이들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튿날에는 현장 견학과 실습이 이어졌다. 3개조로 나누어 반달 가슴곰 생태 학습장, 야생 동물 의료 센터, 지리산 반달 가슴곰 공존센터를 탐방했다. 국립 공원에서의 멸종 위기종 복원과 야생 동물 질병 관리에 관한 실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대학교 수의대, 지자체 등과 국제 동물 헬스케어 포럼 개최



전북대학교가 전북 특별 자치도, 익산시, (재)한국 동물용 의약품 평가 연구원과 함께 9월 17~18일 익산 웨스턴 라이프 호텔에서 ‘2025 국제 동물 헬스케어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물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산·학·연·관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전북 특별 자치도와 익산시, JBNU 지역 발전 연구원, 지역 혁신 센터, 생체 안전성 연구소 등이 참여해 협력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동물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통찰, 전략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주제로, 글로벌 동향과 시장 전망, 임상·규제·GMP 최신 이슈, 지역 기업 육성 전략 등 다채로운 의제가 논의됐다.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 시장, 최정록 농림 축산 식품부 방역 정책국장, 민선식 전북 특별 자치도 농생명 축산산업 국장, 이준화 전북대 부총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캔자스주립대 Roman Pogradichny 교수, 아이오와주립대 윤경진 교수, 일리노이주립대 유동완 교수, 베트남 국립대 Le Van Phan 교수, 일본 아마구치국립대 Ai Takano 교수,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 Alim Isnansetyo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해 국제적 논의의 폭을 넓혔다.

국내 동물 헬스케어 산업계에서도 녹십자 수의약품(주), 우진비앤지(주), 한국샘벤(주) 등 24개 기업이 참여해 최신 산업 트렌드와 미래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업계 간 네트워킹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김원일 (재)한국 동물용 의약품 평가 연구원 원장은 “이번 국제 동물 헬스케어 포럼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매년 체계적으로 행사를 정착시켜 익산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과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대학교 실험 동물 센터, 첨단 생명 과학 연구의 중심으로 도약



전북대학교 실험 동물 센터가 전문적인 연구지원과 윤리적인 실험동물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첨단 생명과학 연구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센터는 2006년 8월 공식 설립되어, 전주 캠퍼스에서 운영되다가 2015년 3월부터 전북대학교 특성화 캠퍼스(익산)으로 이전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설립 이후 실험동물의 과학적 관리와 복지 향상을 병행하며, 연구자에게 전문적인 기술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과 생명과학 연구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실험동물센터는 1,276㎡ 규모의 소동물 사육동과 186㎡ 규모의 중동물 계류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이고 동물복지 지향형 신축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국제 실험 동물 관리 인증(AAALAC)과 우수 실험실 기준(GLP)을 준수하여, 체계적이고 윤리적인 실험동물 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문 교수진 중심의 운영

센터 운영은 김상진 센터장을 중심으로, 박준홍 조교수(간사), 태현진 교수(부장), 윤학영 부교수(부장) 등이 함께 맡고 있다. 이들은 실험 동물 센터의 운영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 및 현황

전북대학교 실험 동물 센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 분야(교육지원부): 초보자를 위한 동물실험 교육과 중대 동물을 이용한 고등 임상술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 이용 서비스: 동물사육시설, 수술실, 검사 비용, 공통 기자재 및 장비 사용이 가능하다.

시설 이용 컨설팅 분야(연구지원부): 기업체, 연구소,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동물실험 컨설팅, 실험 디자인 상담, 연구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CRO 분야(연구지원부): 설치류 및 중대 동물실험 등 동물실험 대행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전북대학교 실험동물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생명과학 연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리대학 조류질병연구소, 고병원성 AI 백신 산업화 '시동'

전북대학교 조류질병연구소(소장 장형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백신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연구소는 최근 (주)코미팜(대표 문성철), (주)바이오드(대표 강민)와 함께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코미팜 본사에서 HPAI 백신 산업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대량 생산 체계 구축과 산업화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백신 기술의 실용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협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2021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H5N1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기존 살처분 중심의 방역 정책이 한계를 보이면서, 예방백신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북대 조류질병연구소는 현재 유럽 등 선진국에서 임상 중인 바이러스 백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3세대 고병원성 AI 유전자 백신 후보를 개발 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권장하는 DIVA 전략을 적용한 백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이러한 연구소의 탁월한 연구 역량에 더해 관련 기업들과 산학 공동연구를 통한 시제품 생산에서부터 현장 적용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구축돼 기존 해외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국내 기술 중심의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3세대 고병원성 AI 예방 백신 산업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돌입하게 되어, 보다 실효성 높은 백신 솔루션을 구현하고, 향후 글로벌 수출시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형관 소장은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넘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백신 산업화를 이루는 것이 이번 협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MOU는 글로벌 백신 시장 진출의 발판이자, 국내 주도의 자립형 백신 기술 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회

JBNU, CVM

전북대 수의대 제37대 오름 학생회, .회장 양경원·부회장 조윤기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제37대 ‘오름’ 학생회(회장 양경원, 부회장 조윤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학생회 선거에 단독 출마한 오름 학생회는 96.28%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옳게 오르다, 날아오르다’는 뜻의 오름 학생회는 옳은 방식으로 학습환경 개선 및 학우들의 단합을 이루어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학교 시설 보수, 타 단과대 및 타대와의 교류 증진, 연합 행사 진행, 시설 이용 관련 민원 접수 채널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름은 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간식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가올 수의사 국가시험 응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양경원 학생회장(본1)은 “학생들이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수의대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대 수의대 오름 학생회 양경원 회장(왼쪽), 조윤기 부회장(오른쪽) ▲

2025학년도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신입식



예과 학생들이 본과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은 수의 학도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뜻깊은 과정이며, 이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을 새롭게 다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에 본과 진입을 기념하고, 학생들이 학문적 탐구와 윤리적 책임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도록 "2024학년도 수의과대학 본과 진입식" 행사를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였다.



2024년도 특성화캠퍼스 연합 축제 (이리제 : 이리오너라) 개최



2024 특성화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과 수의과대학의 연합 축제로 서로 화합의 장을 만들고 익산시와 협업하여 익산 시민들도 즐길수 있도록 지역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첫 신호탄이 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전북대 수의대, '문화의 밤:쉽표' 새롭게 개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6월 5일 전북대 익산캠퍼스에서 '문화의 밤: 쉽표'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전북대 수의대 학생회 '오름'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운동장 여건 문제로 진행이 어려워진 체육대회를 대신해 새롭게 마련됐다.

행사 당일에는 야외 잔디밭에서 영화 <라라랜드>를 상영하면서 아카펠라 동아리 '아르코발레노'와 밴드 동아리 '이얼에이크'의 무대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실내 체육관에서는 학년별 축구, 농구 결승전도 함께 열려 열기를 더했다.

행사에는 타 단과대 학생들, 지역 주민들도 함께 해 색다른 의미를 더했다. 돗자리 사전 구매, 팝콘 무료 증정, SNS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되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학생회의 노력이 돋보였다.

행사 기획을 맡은 학생회 김민석 기획국장(본2)은 “수의대 최초로 진행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장단의 밤낮없는 노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특히 외면받던 학생관 앞 잔디밭이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 것 같아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번 '쉽표' 행사는 첫 기획으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앞으로 전북대 수의과대학만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전북대 수의대, 9월 27일 익산서 반려동물 한마당 개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오름' 학생회가 주최하는 2025 반려동물 한마당이 오는 9월 27일(토) 오후 1시부터 익산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의과대학 학생들에게는 예비 수의사로서의 책임의식을 되새기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당일에는 반려동물 신분증 제작, 포토스튜디오, 펫 페이스페인팅, 일일 수의사 체험, 반려동물 장난감 만들기, 멍BTI 테스트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강아지 야바위, 허들·노즈워크·짐볼터널 놀이공간 '땡땡놀이터' 등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전북대학교 동물의료센터에서는 건강검진 부스를 운영하여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무대 행사로는 산책록 패션쇼와 도전 골든벨이 준비되어 있으며, 다양한 경품 추첨이 진행된다.

특히 학생회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사전신청 이벤트에 참여하면 무대 행사에 직접 참여할 기회와 풍성한 경품이 주어진다. 행사 당일 현장에 참여하기만 해도 사료, 간식 등 다양한 증정품을 받아갈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회 오름이 주관하고, 전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한수의사회, 전북특별자치도수의사회가 후원한다. 또한 중앙백신 연구소, OKVET, 내추럴밸런스, 집밥프로젝트, 노아펫 바이오, LAPOG가 협찬한다.



전북대 수의대, 수훈제로 실험동물 냇기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10월 23일(월)부터 10월 2일(수)까지 수훈제를 진행했다.

전북대 수의대는 희생된 실험동물의 냇을 기리고, 수의학도로서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기고자 매년 수훈제를 진행하고 있다.

23일에는 수훈탑에서 해부학과 실험동물학을 배우는 본과 1, 2학년 학생들과 교수진이 참여한 수훈식이 진행됐다. 학생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추모문 낭독과 교수님과 회장단, 학년 대표의 헌화가 이어졌다.

이번 수훈제는 3일간 진행됐다. 30일 수훈식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이 기간동안 자유롭게 국화를 헌화하며 묵념할 수 있다.



동문회

JBNU, CVM

윤신근 원장 오수개 세계화 발전기금 기탁 및 오수개 노래 작사

▼ 심민 임실군수(가운데 왼쪽)와 윤신근 박사



오수개 노래'는 1997년 오수견연구위원회를 결성해 오수개 부활을 이끈 윤신근 박사가 작사했다. 윤 박사는 최근 오수개의 세계화를 위한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하며 "천 년을 넘어 다시 태어난 오수개가 오수와 임실, 나아가 전북을 상징하는 보배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또한 오수개를 의인화한 동시 *****오수개 아저씨*****도 집필해 어린이들에게 오수개의 정신을 전하고 있다.

강민 교수, 과학기술 개발 공로 농식품 장관 표창

▼ 강민 교수



전북대학교 강민 교수(조류질병 연구소)가 과학기술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강 교수는 가금질병 예방백신 및 신속 진단법 개발과 현장보급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최근 인체감염 사례 증가로 팬데믹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및 변이가 빠른 코로나바이러스에 유효한 3세대 유전자 백신 기술 개발로 향후 국내외 동물감염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 성과는 '2024년도 농식품 R&D 우수성과 20선'에 선정된 바 있다.

강 교수는 "이번 성과는 그동안 축적된 조류질병연구소의 R&D 역량을 바탕으로 추진해온 연구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판소리로 풀어낸 수의사의 마음, 전북대 수의대 안동춘 교수

▼ 안동춘 교수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안동춘 교수(수의해부학)가 오랜 시간 집필해온 <알기 쉬운 동초제 수궁가> 개정판을 출판했다. 이번 개정판은 더욱 치밀한 해석과 방대한 주석을 추가해 학문적 깊이와 완성도를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안 교수는 해부학 교육과 연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동물의 희생을 마주해야 하는 수의사로서, 늘 내면적인 갈등과 미안함을 느껴왔다고 털어놓았다. 그 마음을 달래고자 다시 펴친 작품이 바로 판소리 *〈수궁가〉*였다. 그러나 세월 속 구전 과정에서 의미가 왜곡되거나 달라진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부학자로서 이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며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판소리를 통해 동물을 위로하고 제 내면의 미안함을 털고 싶었습니다. 수의사로서 동물을 살린 적도 많지만, 연구자이기에 희생을 시켜야 했던 경험도 있었죠. 이번 작업은 저에게 일종의 반성문이었습니다."

안동춘 교수는 책에 담긴 진심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에게 *〈수궁가〉*는 단순한 고전 판소리가 아니다. 동물을 통해 인간 세상사를 비추는 거울이며, 진실과 환상의 경계를 묻는 질문이자, 오랜 수의학자의 길을 걸어오며 남긴 반성의 기록이다. 그는 "음악과 예술은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는 힘을 가진다"며 "판소리가 삶의 무게를해학으로 녹여내듯, 학문과 예술을 향한 제 여정도 독자들에게 위로와 울림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수궁가 개정판 출판을 마친 안 교수는 앞으로도 예술과 학문을 잇는 작업을 통해 '동물의 생명'이라는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묵묵히 찾아갈 계획이다.

발전기금

JBNU, CVM

인천중앙동물병원 김형년 원장의 22번째 기부



21년째 후학 양성을 위해 기부한 인천중앙동물병원 김형년 원장(수의대 67학번)의 아름다운 기부의 손길이 올해도 이어졌다. 김 원장은 올해 1천 2백만 원의 기부금을 전북대학교에 전달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11월 12일 오후 1시 20분 대학본부 4층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형년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원장의 기부는 2003년, 전북대 수의대 시절의 은혜를 후배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다짐에서 시작됐다. 이후 김 원장은 학업에 정진하는 후배들을 지원하고자 매년 기부를 이어오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왔다.

처음 2천만 원으로 시작된 기금은 해마다 그의 형편에 맞추어 꾸준히 이어졌으며, 그 약속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치 않았다.

특히 올해 그의 기부는 더욱 뜻깊다. 개교 77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문대상'을 수상한 김 원장은 학교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던 1천만 원의 기부금과 상금 2백만 원을 학교에 다시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그의 누적 기부액은 올해로 총 4억 2천 2백만 원.

이에 전북대는 김 원장의 기부금을 '김형년 장학금'으로 명명하고 매년 수의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그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기억하고자 수의대 강의실도 '김형년홀'로 명명했다.

김 원장은 "나눔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큰 기쁨을 준다"며 "앞으로도 많은 후배들이 꿈을 펼치고 나눔의 전통도 이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원장의 발전기금은 '김형년 장학금'으로 명명돼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수의대 학생들의 장학 사업에 쓰인다.

故백영기 수의대 명예교수 가족,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수의과대학 故 백영기 명예교수의 가족이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은 3월 6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2월 23일 작고한 故 백영기 명예교수의 유지를 받들어 그의 아들인 ㈜유엔아이인슈어런스컨설팅 백강현 대표가 직접 대학에 전달한 것으로, 전북대 수의과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후학 양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백영기 명예교수는 전북대 수의대 1회 졸업생으로, 재직 시절부터 제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왔다.

그는 2018년 1억 원을 기부하며 ‘제암 백영기 장학회’를 설립했고, 2020년에도 1억 원을 추가 기부해 총 2억 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바 있다.

이번에 그의 유지를 이어받은 가족들의 추가 기부로 수의대 발전을 위한 기금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아버지의 부의금 전액을 ‘제암 백영기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며, “이는 아버지께서 평생을 헌신하며 사랑하신 전북대 수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한 길이자, 고인의 평생 바람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전북대는 故 백영기 명예교수의 뜻을 받들어 후학 양성과 수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선배들의 따뜻한 물려주고 싶어”... 지동범 원장, 2천만원 기부



“학창시절, 선배들께 받은 따뜻함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전북대학교 수의대 출신으로 국내 수의안과 분야 권위자인 지동범동물안과치과병원 지동범 원장이 수의대 후배들의 학업 지원에 써달라며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지 원장은 전북대 수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동문으로, 학창 시절 선배들의 응원과 도움 속에 성장한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 따뜻함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자 꾸준히 기부해 왔다. 이번 기부금은 학생 실습과 교육용 수술실 장비·기구 확충 등 학업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대는 8월 14일 오후 2시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기증식을 열고 지 원장을 초청해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으며, 대학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기부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지동범 원장은 “전북대 수의학과는 기부 문화가 잘 뿌리내린 곳”이라며 “저 역시 학창 시절 선배들의 마음을 느끼며 공부해왔기에, 이제는 그 마음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수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오봉 총장은 “지 원장님의 나눔은 후배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이라며 “대학도 그 뜻을 살려 수의과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수의과대학 유일정 학장, 인재양성 발전기금 1천만 원 기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수의과대학 유일정 학장이 수의대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기원하며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은 1월 13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유 학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 학장은 전북대 수의과대학의 동문으로, 2003년부터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학문적 성취와 교육적 열정을 이어왔다. 그는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학교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유일정 학장은 “전북대 수의과대학은 교과과정 개편과 국제 수의학 인증 준비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부가 수의과대학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전북대가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오름동물병원 차승언 원장, 1천만 원 기부



전북대학교는 차오름동물병원 차승언 원장이 수의과대학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거창에서 차오름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차 원장은 지난해에도 수의대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연세대 공대를 졸업한 뒤 해군 학사장교로 복무하던 중 수의학에 대한 열정을 품고 전북대 수의과대학에 편입한 차 원장은 졸업 후 서울우유 중앙연구소 연구원, 동물병원장, 책임 수의사, 축협 진료 수의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기부금은 수의과대학 산업동물 및 대동물 분야 교육 환경 개선과 발전에 쓰일 예정이다.

전북대는 이날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주요 보직자, 차승언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을 열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차 원장은 “재학 시절 성적 장학금을 받아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점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며 “이번 기부금이 산업동물·대동물 분야 교육 여건 개선에 쓰여 후배들이 이 분야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동물 분야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중추적 기반이자 구제역·럼피스킨병 같은 가축 전염병 대응의 최일선이며,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원 헬스(One Health)’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교육 여건이 점차 나아진다면 후배들 역시 이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부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활동의 일환임을 강조한 차 원장은 “이번 발전기금도 올해 초 실시한 구제역 및 럼피스킨 일제 집중 사업의 수익을 모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제역 일제 집중이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발전기금 환원해 반려동물 수술 실습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 기부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대 수의대 영상진단학 대학원생들, 후배들을 위한 따뜻한 기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영상진단학 실험실 소속 대학원생들이 후배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뜻깊은 기부를 실천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학문 공동체 내에서의 선후배 간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기부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은 모두 대학원 생활을 하며 크고 작은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선배들의 장학금과 응원 덕분에 큰 힘을 얻었던 경험을 공유했다. 그 기억을 되새기며, 자신들 역시 이제는 후배들을 응원하고 돕는 입장에서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 이정민 대학원생

저도 대학원생 시절 작은 금액이 나날 일이 있을때도 부담이 있었는데 선배분들의 장학금 덕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후배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 김태겸 대학원생

학부생때 기부 해주신 여러 선배님들을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부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근하 대학원생

제가 대학원 시절을 보낸 수의영상진단실은 제게 학문적 성장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던 뜻깊은 공간이었습니다. 이 기부가 앞으로 실험실의 연구와 교육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 역시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받았던 가르침과 지원을 후배들에게 되돌려 드리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험실이 임상과 학문 분야에서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며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전북대 수의대 영상진단학 대학원생의 이러한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이 아닌, 학문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따뜻한 선순환의 문화를 실천하는 귀감이 되고 있다.

늘푸른동물병원장 권순학 동문(수의학과), 1천만 원 기부



“수의대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수의과대학 동문인 권순학 늘푸른동물병원 원장(수의대 88학번)이 올해에도 수의대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작년 7월 18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기부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열고,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권 원장의 뜻에 감사를 전했다.

권 원장은 “수의대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교가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돼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원장은 2024년에도 수의대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이번 기금은 수의과대학 지정기금으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JEONBUK NATIONAL UNIVERSITY

발행일 2025년 12월 2일

발행인 유일정,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편집인 김종완,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발행처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TEL 063-850-0906

FAX 063-850-0910

홈페이지 <https://vetmed.jbnu.ac.kr/vetmed/index.do>